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제407호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비용 250만원까지 지원…변호사 연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개정 촉구

사망 임대인 피해자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대행 심리 상담·정신과 치료비용 지원도

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 이때 수입료를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소송 지원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한다.

선임 신청에 필요한 법률 조치를 대행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최초 보수를 정부가 지급한다.

동일한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 공고를 통

해 피해자를 모은 뒤 공동으로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된다.

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신 의학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원까지 전액·초과 시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1670-5724)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해 3회 상담을 지원한다.

/ 송원기 기자

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입료를 16일 밝혔다.

2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尹대통령, 공개일정 없이 숙고…용산발 쇄신 향배에 쏠리는 시선

외부일정 없이 수석비서관회의·주례회동 등 내부 통상일정만 소화

집권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일정으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용산발 쇄신'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당대'(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의 변화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민심을 다시 품을 방안을 놓고 윤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보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날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와 종리 주례회동 등 내부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면서 각종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달 중순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방한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연기되면서 관련 일정이 취소된 여파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일정을 채워 넣지 않았다고 한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한 점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 모두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대목으로 받아들

여진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변화'는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폐인 분석과 쇄신 방안 모색 작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문하며 "차분하게 지혜롭게"를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기현 2기 체제'의 평가와 관련해선 일단 쇄신의 결과물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안 없이 체제를 무조건 흔들고 바꾸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방향이라며 변화와 쇄신이 혼란의 지속으로 이어지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신념이지만 이번 보선 참패, 총선 준비 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교체가 더 서둘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필두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참모진의 연쇄 사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의 출마를 위한 행보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 참모진과 내각이 자연스럽게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는 개각 역시 중폭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의 '키워드'가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백경민 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어려운 법률 문제 경기도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민·형사, 가사, 세무, 노무에서 부동산까지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 문의하세요.
쉽고 편리하게 도민의 법률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방법 _전화, 방문(사전예약)

#상담예약 _경기도 콜센터 031-120

#상담시간 _평일(월~금) 10~12시, 14~17시

#대상 _도민의 법률 고충상담, 북한이탈주민·외국인주민 법률 문제 상담
저소득 취약계층 무료소송지원 등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 안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

김기현 대표, "총선 패배하면 정계은퇴로 책임"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당 쇄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표가 전했다. 특히 김 대표는 "총선에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의 진'을 치고 강력한 당 쇄신을 통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자신을 향한 보선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다"며 이같은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의총에선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전날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의 총사퇴만으로는 당 쇄신 동력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과 당정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뤘다"고 윤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 박재호 기자

'세종청사 첫 출근' 유인촌 "가슴 뛴다…문화 중심되도록 할 것"



청사 로비서 직원들 꽃다발 전하며 환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출근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취임식을 앞둔 이날 오전 8시50분께 문체부 세종청사에 출근해 "세종시가 만들어진 다음 처음 와보는 것이고 직원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청사 로비에 나온 문체부 직원들은 유 장관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환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1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두 번째 장관직을 맡게 됐다.

유 장관은 "마음은 의욕이 넘친다"며 "문화가 중심이란 얘기는 20~30년 전부터 한 얘기다.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문화산업 시대이다. 수출되는 문화 산업 실적만 빼도 증명된다"며 "직원들이 일은 힘들어도 정말 뭔가를 이뤘다는 뿌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통일부, '북러 무기거래' 정황에 "전세계 속여온 北실체 드러나"

의대 신설, 27년 만에 빗장 풀릴까…카이스트 의대 신설 주목

교육부 "지역별 의료여건·대학별 교육여건 고려…복지부 지침 있을 듯"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의대가 새롭게 설립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 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POSTECH)에도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천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천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현재 의대 정원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둑인 탓에 의대 신설 역시 3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됐던 것은 1990년대 말이다.

1997년 성균관대, 카이스트,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의 일이 된다. 일각에서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확

대될 경우 기준 의대에 나눠주는 것보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포럼'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 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

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

진대), 대전·충남(카이스트, 공주대), 경북(안동대, 포스텍), 경남(창원대), 부산(부 경대)에서도 의대 신설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카이스트, 포항공

대학에서도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3

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에 의

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

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

며 "(의사) 임금 체계 등도 장기적으로 계

속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

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

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추진하는 방

식으로 이뤄진다.

각 대학이 통상 전년도 4월까지 대학입

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망대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

원 증원을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 증원

된 의대 정원 규모를 배정하는 과정을 마

무리해야 한다.

/ 윤형찬 기자

/ 배성윤 기자

다자녀 부모, 퇴직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열린다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종 시행된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배성윤 기자

사장비와 탄약을 보냈고, 러시아도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 15일 상업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4일 사이 북한 나진항 부두에 대형 선박이 최소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양국 무기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 한호석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의식 잊고 쓰러진 식당 종업원 구해



이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진행됐다.

당시 백 대표는 관광공사와 금산세계인삼축제 특화 머거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금산을 방문 중이었다.

식당 층에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행히 종업원이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119에 인계했다고 더본코리아는 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 대표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 곽현준 기자

SR의 새로운 변화 대한민국 철도의 가치를 높입니다

SRT를 통해 만나는 사회, 경제, 문화의 융·복합 서비스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SR

용산구, 햄터원 인파 대책…현장상황실·비상통행로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3일 구청에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햄터원 데이 인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햄터원 기간(10월27일~11월1일)에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음식거리, 아래원로, 퀴논길 일대를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한다.

회의에는 박희영 구청장과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인수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용산구청 종회의실에서 열린 햄터원 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등이 마련됐다.

현장상황실은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다. 구·경찰·소방·군 3537부대 등으로 구성되며 군중 분산, 차도·보도 통행 관리 등을 총괄 지휘한다.

구는 아래원역 2번 출구 인근의 세계음

식문화거리 진입 이면도로에 경찰 안내 방송차, 소방서 구급차를 1대씩 배치한다.

이태원119안전센터 맞은편-이태원 교회 1개 차로는 보행로, 맥도날드 이태원점-이태원역 1개 차로는 긴급차량 비상 도로로 운영한다.

오는 25일까지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 까지 방법용 폐쇄회로(CC)TV 130대, 비상벨 25개의 고장 유무를 점검하고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 관제에 나선다.

용산경찰서는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용산소방서는 '긴급구조 약식통제단'을 가동한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도 비상대기 조를 편성해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이태원역과 녹사평역의 경우 승객 폭주 등 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적극 시행하며 군도 필요하면 병력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7일부터 5일간 이태원 일대 주민과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민·관·군·경이 함께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희성 기자



50년간 생활물가 변화는?

라면 8배·소주 14배로 올라

서민들이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은 약 50년간 8배로 올랐고, '국민주'로 꼽히는 소주 가격은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창립 50년을 맞아 '10월호 월간 물가자료'에 지난 50년간 주요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수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 가격 변동을 보면 라면 가격은 1978년 1개(120g) 100원에서 1993년 230원, 1998년 410원, 2008년 600원, 올해 820원으로 올랐다.

국수는 1978년 1봉(900g)에 155원 이었으나 1993년 1천130원, 2008년 2천400원, 올해 2천790원이 됐다.

올해 가격은 지난 1978년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이다.

소주 360㎖ 기준 가격은 지난 1974년 95원에서 올해 1천370원으로 14배로 올랐고, 맥주 가격은 같은 기간 360

/ 차현우 기자

美전략폭격기 B-52 이번주 국내 첫 착륙…북한 반발할 듯



미국 중부시령부는 미 루이지애나주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2폭격비행단 소속 B-52H 폭격기 2대가 13개 협력국 공군 전력과 통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7일 개막 'ADEX'에도 참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금주 내 한반도에 전개돼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인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B-52의 국내 첫 착륙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B-52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미 공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B-1B는 2016년 9월 오산기지에 착륙한 바 있다.

이번 B-52의 국내 착륙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열중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B-52의 한반도 상공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 B-52의 국내 첫 착륙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정혁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안철수 “이준석,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오늘 제명 요청”

“자기선거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내버려두면 또 내부총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분당질 치는 '응석반ai' 이자 자기 선거는 예측하지 못해 세 차례 낙선한 '마이너스 3선'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천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이 전 대표의 제명 징계 관련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해당 서명에 동참한 이들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

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언제까지 이 응석반ai에 분당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건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강서구 지원유세 도중 불거졌던 자신의 '욕설 논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비판 성명을 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

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선거 방해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몇 퍼센트로 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준석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며 "지역구 자기 선거, 그것도 예측 못 하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 폐배에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하다"고 비꼬았다.

/ 흥순석 기자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는 ‘죽음의 일터’ 방지하는 것”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움직임에 반발…“10만명 서명운동 시작”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에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온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45명에 달



한다"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 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與 사무총장 TK재선 이만희·정책위의장 수도권 3선 유의동

지명직최고위원 김예지·조직부총장 원외 함경우·여의도연구원장 경기 재선 김성원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 (TK) 출신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 의원이 내정됐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했다고 정광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인선은 이를 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사무총장은 내년 4·10 총선 공천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시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내 친윤(친 윤석열)계 쪽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총 추인을 받아 임명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

총회를 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주인한다.

유 내정자는 역시 비교적 계파색이 옅지만, 당내에선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비례대표 김 예지 의원이 임명됐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다. 조직부총장에는 앞서 한 차례 조직부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내년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경기도 재선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강원 원주갑 초선 박정하 의원이, 선임 대변인은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하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송유영 기자



홍익표 “尹 대학동문” 양평道 휴게소 특혜 의혹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특혜를 입은 업체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막대한 혜택까지 돌아준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를 인용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남한강 휴게소 / 황순길 기자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유지…“11월 재창당 준비 주력”

11·19 당대회 이후 ‘총선 지도부’ 교체 가능성

정의당 정책자문단 발족식

2023년 9월 17일(일) 11:00 /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정책자문단 발족식

정의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이정미 지도부’ 체제를 다음 달 19일 열릴 ‘재창당’ 당 대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가기로 최근 시도당 연설회의 등에서 의견이 모였다”며 “지도부는 11월 19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 대회 때까지 재창당 준비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번 보선 참패를 두고 지도부 사퇴론이 일었다.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은 1.83%로, 원내 1석인 진보당 후보(1.38%)와 비슷한 수치였다.

당 관계자는 “이정미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구성원의 대체적 의견은 현 지도부로 당 대회를 치르자는 것”이라며 “11월 당 대회 이후 ‘총선 지도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녹색·노동·제3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재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당명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재창당 플랜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오정수 기자

선관위, ‘관권선거 주장’에 “국정원과 합의된 점검도구 삭제”

野 “국정원이 철수하면서 도구 심어놓아”…선관위 “기술적 한계로 2개 남았던 것”

중앙선기관리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보안점검 종료 뒤 선관위가 시스템에 남아있던 점검도구(툴) 2개를 삭제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발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정원 등과 합의된 보안 컨설팅 후속 조치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종료 후 합동으로 선관위 시스템 내부에 설치했던 점검 도구를 삭제했다”면서 “다만 모든 점검 도구들을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국정원과)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점검 도구 2개를 발견해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후 철수하면서



심어놓은 툴이 2개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정원발 관권 선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민영환 기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 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동참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

“도박 빚 갚으려 계획 범행”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불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6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결국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경찰서로 들어가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인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1

월께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도박에 이용된 금액은 40여원 상당으로,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초 사업상 지게 된 빚 때문에 즉흥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인터넷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채무가 주된 범행 동기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기단에 놓인 정율성흉상 또 떨어뜨려 보수단체 회원 입건



또 훼손된 정율성흉상

광주 남구 양립동에 있는 정율성흉상을 기단 위에서 떨어뜨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흉상 목 부분에 벗줄을 묶은 A씨가 이를 승합차에 연결한 뒤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흉상을 기단 위에서 떨어뜨렸다.

흉상은 지난 12일 신원 미상의 인물에 의해 기단 위에 올려졌으나, 다시 A씨에 의해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에도 오전 1시 30분께

/ 이영민 기자

법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 없어”



사무총장·조직국장·상별위원장·상별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 당한 집행부 중 6명은 황 회장에게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이 없다며 거쳐온 소송을 제기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정계하려는 집행부 일부를 직위해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6일 공법 단체인 5·18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거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 6명 중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를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을 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선거사범 피의자에게 검찰 재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 유죄

재판부 “비밀누설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자신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상황을 알려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서희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 한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부산시교육감 선거 당시 흥보를 위해 금품을 건네 전 대학 총장 B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인 B 씨를 비롯해 변호사 C 씨에게 재수사 요청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당시 B 전 총장에게 “검사한테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검사 생각이 틀렸다는 추가 의견서를 빨리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 경위는 재판에서 “당시 검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수긍할 수 없었고 방어권 보장 치원에서 피의자에게 재수사 요청 취지를 상세하게 전달한 것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전달한 이 사건 재수사 요청 내용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다른 유착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채형민 기자

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 ~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항정신성의 약물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에서 차를 몰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 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본다.

신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경찰은 사고 9일 뒤 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뒤 신씨는 구속됐다.

/ 백서연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중소기업 공제기금

KBIZ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교환 2번) | fund.kbiz.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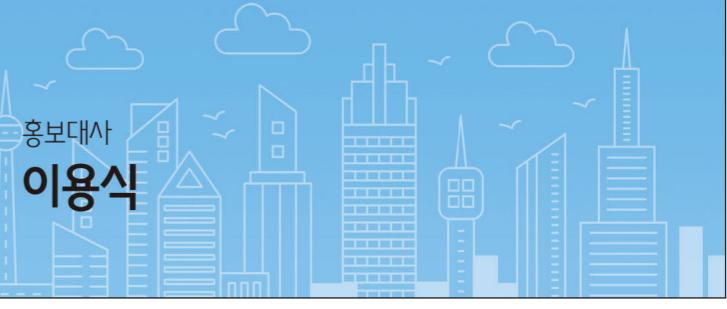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

비대면 원클릭 대출
부금의 최대 1.5배 이내

노란우산 연계 대출
최대 2천만원(연4.5%)

어음·수표 대출
부금의 최대 7배 이내



바이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다시 점령한다면 큰 실수 될 것”

지상전 임박 속 발언 주목…“이스라엘에 모든 것 지원, 美 파병은 불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공개된 미국 CBS 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 전문에서 지난 7일 하마스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교전과 관련,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내 견해로는 하마스와 하마스의 극단적 분파들은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가자를 다시 점령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스라엘군(IDF)은 2006년 1월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중동전쟁 때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38년 만에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유대인 정착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가 커지는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 돌입이 임박한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면 해체 입장에 지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미 병력의 이스라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새로운 중동 전쟁에 미군 파병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투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지 말고 전쟁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란이 하마스 공격을 지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란은 지난 1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관리하면서 국제적 방어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해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시간이 필요할 뿐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아이들 안고 대피하는 가자지구 주민들

이·팔 전쟁, 가자 이미 생지옥
WHO “사망자 60%가 여성·어린이”

**병원연료 불과 24시간분
지상전 없어도 수천명 사망 우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전면 봉쇄에 나서면서 어린이, 여성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가자지구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한 관리는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60%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9일째를 맞은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4천명을 넘어섰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저녁까지 집계된 누적 사망자가 2천670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9천600명이다.

이날까지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천 5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앞두고 이날 가자지구 주민들에 게 안전을 위해 남부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주민 100만명 이상이 남쪽으로 피란길에 올랐으나 피란 도중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우려하는 주민과 이동이 어려운 환자나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 기구들은 봉쇄 상황에서 대규모 대피는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구호단체 적신 월사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대피령을 내렸지만,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자시티에 있는 한 병원의 경우 300명의 환자 가운데 일부는 중환자실에 있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 김원호 기자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

일본 경제산업상,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참배

니시무라 애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오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제사인 주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앞두고 이날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국가와 가족을 생각하며 전화(戰禍)에 쓰러진 영령의 안녕을 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비로 다마구시(玉串·비주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 속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해에도 폐전일(8월

15일)과 추계 예대제 직전, 그리고 올해도 폐전일 직후인 8월 21일 각각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취임 후 그동안 직접 참배하지 않고 다만 구시 대금을 봉납해 오고 있다.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 권정석 기자

러시아 외무장관, 中 방문…지난달 이어 왕이와 회담 예정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도 참석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 중국을 방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라브로프 장관이 러시아 대표단 일원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는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하고,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라브로프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회담하며 양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중국 베이징 도착한 러시아 외무장관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독립국 가연합(CIS) 정상회담 참석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 배종호 기자

日 기시다 내각지지율 출범 이후 최저…3% 넘는 고물가 등 영향

아사히 조사 29%로 지난달 37%서 급감…요미우리도 34%로 감소세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현지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2021년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6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9%로 지난달(37%)보다 8% 포인트 하락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아사히 조사 기준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였다. 기존 최저 기록은 작년 12월의 31%였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4%로 지난달 조사보다 1% 포인트 내려가면서 역시 정권 출범 후 최저로 나타났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마이니치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승으로 인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소비물가가 3% 이상 올랐다.

또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マイナンバーカード’ 도입 혼란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개각과 집권자 민당 인사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응한 전기·가스요금,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에 더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담은 새로운 경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 조성훈 기자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0-7490 | e-mail : ibkethics@ib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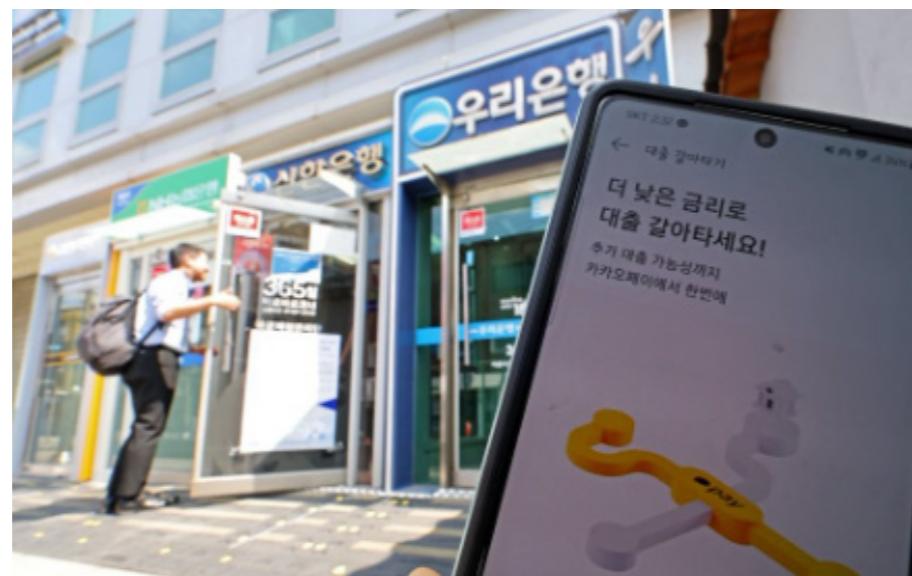
대출비교 플랫폼 뜨자 2금융권 수수료 부담 낮아졌다

2020년 1.56%서 올해 1.44%로 수수료율 하락…연 143억원 절감 추산

핀테크 업체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제2금융 제휴사의 수수료 부담이 연 100억원 넘게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스·카카오페이지·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등 5개 플랫폼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제2금융권에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49%, 2022년 1.48%, 2023년 상반기 1.44%로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에서 중개된 신규 취급액이 5조9천63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제2금융권이 연말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2020년 대비)는 약 143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 수



수료는 제2금융권이 오프라인 대출모집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2.62%·1천만원 대출 가정)의 절반 수준이다.

플랫폼의 상반기 취급액 5조9천635억

원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금융사 수수료 부담은 703억7천만원 가량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2금융권의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동안 1금융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2020년 0.22%에서 올해 상반기 0.34%로 오히려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비교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 플랫폼 간 활발한 제휴 경쟁 효과가 플레이어가 한정된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올해 5월 개시한 대환대출 서비스는 2개월간 5대 플랫폼의 제2금융권 수수료율이 1.11%로, 대출비교 서비스 수수료율을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취급액은 125억 7천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환대출·대출비교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고, 플랫폼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신정윤 기자



LGU+,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잇고’ 공개

LG유플러스[032640]가 화물운송 시장의 디지털 전환(DX)에 뛰어들어, 관련 매출을 3년 내 1천5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6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택배 수준의 편의성’을 기치로 내진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잇고’를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수거하는 ‘파스트마일’과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미들마일’ 시장에 집중한다.

미들마일은 주로 판매자에서 물류센터 까지 기업간거래(B2B) 운송을 뜻한다.

통계청 집계로 화물운송 시장 규모는 2020년 연 37조원에 이르지만 전화 접수와 운송장 수기 작성, 프로세스 없는 배차 시스템 등 아날로그 요소가 남아있어 비효율과 갈등이 지속됐다.

화물잇고는 화물 중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배차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했으며, 스마트 배차 관리 및 실시간 운송 관제 서비스를 마련한다. 정산 및 실적 관리 시스템도 운영하며, 업계 최초로 플랫폼에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기능도 구현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전략적 협업으로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성장 전략도 발표했다.

수개월간 이뤄진 실증 과정에는 화물 내비게이션·물류 설루션 기업 ‘로지스텍’이 참여했으며, 화물운송 중개 기업 ‘강동 물류’, 디지털 물류 스타트업 디비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고객 확보와 운송 최적화 쪽에서 협력한다. 안전하고 빠른 정산을 위해 신한카드와 화물 운송료 전용 결제 카드도 도입한다. 화물잇고는 이달 중 정식으로 출시된다.

임장혁 LG유플러스 신사업그룹장(전무)은 “상생하는 화물 시장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고 아날로그 시장에 물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보험료 낮춘 반려동물보험 출시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추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장범위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가 검토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이 허용된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늘어났다. 설문조사 등에 따르

면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개선안은 우선 반려동물보험에 안정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

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흉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준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현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 오은주 기자

하이트진로, 베트남에 첫 해외공장…“소주 세계화”



하이트진로가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소주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달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했고, 하이트진로싱가포르는 첫 사업으로 베트남 타이빈성에 소주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베트남은 물류 접근성이 좋고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이트진로는 해외 소주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을 위해 이번 공장 건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년간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량은 연평균 약 15%씩 증가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성장세가 이어져 10년 뒤에는 해외 소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강희찬 기자

LS전선, 싱가포르서 1천억원대 초고압케이블 프로젝트 수주



치열한 지역이다.

LS전선은 2010년부터 싱가포르 시장을 적극 공략해 핵심 공급자 입지를 지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케이블 납품부터 시공, 설치까지 아우르는 텐

키(turn key)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블의 경우 230㎿급 이상은 LS전선이, 66㎿급 이하는 LS전선아시아가 공급한다.

LS전선 관계자는 “코로나 3년간 보류 됐던 프로젝트들이 올해 재개됐다”며 “일반 소비재와 달리 내구성, 안정성, 신뢰성이 중요한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안정적 품질 관리 등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을 통해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송전탑을 세우지 않고 땅 밑을 지나는 지중 케이블만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지중 케이블 사업 수주를 위한 글로벌 업계의 경쟁이



삼성전자, 제트 청소기 장난감 증정 ‘젯.셋.고’ 챌린지

삼성전자는 무선 스틱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를 통해 온 가족에게 즐거운 청소문화를 제안하는 ‘젯.셋.고’(JET.SET.GO)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와 협업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청소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만든 ‘제트 청소기 장난감’ 출시를 기념해 챌린지를 마련했다.

기존 빈스포크 제트 AI 사용자는 SNS 계정에 사용 후기를, 신제품 구매자는 구매 인증사진을 삼성닷컴 내 챌린지 페이지에 인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각 100명에게 빈스포크 제트 AI의 외관 디자인 그대로 제작한 제트 청소기 장난감을 증정한다. / 신지호 기자

모든 리더,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롭게



자식들 다툼 없이 상속은 잘 될까?

내가 없어도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눈에 밟히는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나의 명예로운 인생 신한으로 선택하다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복잡하고 불안한 유산상속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으로

내 뜻대로 준비하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누리세요

신한은행

SOL 상담신청하기



내 자산 내 뜻대로 명예롭게 상속하는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내 뜻대로 상속설계고객 생전에
본인의 의지와 뜻을 반영한 상속설계**간편한 상속 절차**유언장 작성에 따른 공증 및
복잡한 상속 절차 생략**고객 맞춤형 컨설팅**다양한 신탁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증식 및 재산관리**믿음직한 상속 집행**신한은행이라 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안전한 상속 집행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신탁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등은 양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531호 (2023.09.25~2023.12.31)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4365-1호 (2023.09.18~2024.09.18)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상속, 증여, 세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

우리에게 신탁하세요

고객을 위한 전문가들의 종합컨설팅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마음을 기록하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상속재산 배분

신탁된 재산을
고객님의 의지대로
신속 정확하게 집행

걱정 없는 증여플랜

재산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통제 가능

고령사회 대비 자산관리

향후 치매·질병 발생 시에도
안전한 자산관리 가능

사회적 책임 실현

장애인사랑신탁,
우리나눔신탁 등

생애 종합자산관리

고객 및 출형
자산관리 및 최적의
플랜 제시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수수료, 중도해지, 운용방법, 계약종료 등), 고객님은 신탁계약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수수료, 중도해지, 계약종료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신탁재산(운용자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신탁 상품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4515(2023.05.24~2023.12.31)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038호 (2023-06-07 ~ 2024-06-06)

천안시, 미국 실리콘밸리 3개 기업과 ‘디지털 인재육성’ 협약

충남 천안시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혁신센터(KIC) 실리콘밸리’에서 씨야, 에이엔케이, 코싸인온 등 3개 글로벌 벤처기업과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와 3개 다국적기업, 사업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블루문드림’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글로벌 현장 체험 및 실습 기회 제공,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에 따른 자문 및 지원,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인력 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양성사업은



기념촬영하는 박상돈 시장(앞줄 왼쪽 5번째)과 관계자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천안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서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따라 지난 8월 천안지역 청년뿐

아니라 12개 대학 학생과 대학원생 중 4명을 선발하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에 각각 3개월간의 해외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인턴십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등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천안 청년들이 세계적 기술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스마트한 글로벌 지역인재로 자리매김해, 스타 멘토로서 후배를 양성하며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곽현숙 기자

경북도 “신공항 화물터미널, 2개 이상 설치안 검토 중” 터미널 대구 군위 설치 계획에 경북 의성 반발 ‘갈등’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15일 화물터미널을 2개 이상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아침 미국 출장 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공항 수송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여객기 수송 화물터미널 분리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도는 신공항이 항공 물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니즈에 맞게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서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고 화물 종류에 따라 활용을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화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일정 거리 운송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바이오·백

신 콜드체인이나 신선 농산물 등은 신속한 운송과 통관이 필수적이라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연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실제로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0위 이내의 대표적 물류 공항들에 화물터미널이 2개 이상 설치돼 있으며 물류단지도 연접해 있다”며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안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바이오·백신 콜드체인 및 신선 농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의 화물터미널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의성 지역에 설치하는 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도 의성군이 공동으로 유치해 두 지역에 걸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건설하기로 하자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주장하며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 박정훈 기자



도봉구 직원이 1인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하는 모습

도봉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해결한다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 착수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회적 고립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조사와 고독사 위험군 판단 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난 2021년, 2022년 실태조사 양식을 간소화해 대상자의 높은 응답률을 얻고자 기획됐다.

조사는 ▲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 1인가구 중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 ▲ 2022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거부한 세대 ▲ 2021년, 2022년 실태조사로 빌려온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는 기존 ‘1인가구 실태조사표’에 ▲ 비상연락처 ▲ 카카오채널 도봉위기

가구 밸굴플랫폼 추가 여부를 추가했다. 은둔·고립 성향이 있는 1인가구의 비대면 도움 요청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동네돌봄단’, ‘봉구네 희망씨 근로자’ 등 지역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독사 비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 시 위험군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생활 환경을 다시 한번 꿈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될 없도록 앞으로도 구민 곁 가까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안산시, 출생지원금 확대…셋째 이상 300만원→500만원

경기 안산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을 기준보다 20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가 500만원을 지급한다. 기준에는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출생축하금을 받으려면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및 출산에 고민이 큰 엄중한 시기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타개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시행 중인 임신·출산·육아 등 단계별 총 60여 개의 지원 및 감면시책은 안산시 출산·양육 사이트(<https://www.ansan.go.kr/iloveyou/>)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희진 기자

경기교육청, 다문화 학생 한국어 집중 교육

안산에 개원 후 도내 전역 확대…지역 협력 모델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사회와 함께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곳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심리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단기형(60일)과 장기형(1학기)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해득에서 오는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자 이 학교를 추진했다.

17일 안산에 먼저 개원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며 이를 위해 퇴직 교원 4명을 채용하고 250차시 교재로 직접 개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동두천 개원에 이어 남양주, 시흥 등 도내 전역으로 한국어공유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약 4만9천명으로 전국 2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은 2015년 2천676명에서 지난해 1만 7천17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의령 500살 감나무에 감 열려 지역사회 “좋은일 있을 것” 기대

경남 의령군에 있는 수령 500년 된 감나무에 감 50여개가 열려 눈길을 끈다.

16일 의령군에 따르면 정곡면 백곡리에 있는 수령 500년 된 감나무에서 최근 감이 열렸다. 이 나무는 높이 28m, 가슴 높이 둘레가 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다.

2008년 3월 감나무 중 최초로 천연기념물(제492호)로 지정됐다. 일반적인 감나무는 200~250년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나무는 두배 더 살고 있는 셈이다. 감 4개가 열려 관심을 모았던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 나무에서 다시 감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올해 의령에 좋은 일이 있을 것’란 기대감에 차 있다.

또 주민들은 때마침 감이 익고 지난 9일 막을 내린 국내 유일 부자 축제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이 성공을 거뒀기에 ‘감나무가 이를 예감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양 개선과 영양분 공급으로 생식능력이 향상돼 감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며 “500년 된 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전했다.

/ 민효성 기자

SINCE 1965
NH농협생명

58년 동안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100년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생명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금융으로 세상을 ●롭게



고객보호는 신한의 꺼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금융은 안전한가요?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이룰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신한을 만나더라도
당신의 금융을 가장 먼저 지키겠습니다.

신한의 중심에 소비자 보호를 바로 새기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프로야구 3~5위 경우의 수 36개 중 'NC 3위'가 23개…두산 희박

SSG·두산은 맞대결서 4위 싸움 벌이며 NC 결과 확인해야

2023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3~5위는 정규시즌 마지막 날인 17일에야 가려진다. NC 다이노스가 3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에도 기회는 있다.

또한, SSG와 두산은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3위를 놓치더라도 '1승'을 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설 수 있는 4위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을 느낀다.

NC, SSG, 두산 모두 2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3~5위 경우의 수는 총 36개이다.

16일 아침을 '단독 3위'로 맞이한 NC가 3위를 차지할 경우의 수는 23개로 가장 많다. 4위 SSG가 3위로 정규시즌을 마칠 경우의 수는 10개, 5위 두산이 3위를 뛰어오를 경우의 수는 3개다. NC는 16일과 17일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와 2연전을 치른다.

SSG와 두산은 16일 잠실, 17일 인천에서 맞대결한다.



10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선발 NC 페디가 아웃 카운트 한 개를 남은 상황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3위 확정 매직넘버는 NC가 쥐고 있다. SSG가 두산과의 마지막 2경기에서 2승 또는 1승 1무를 거두면, SSG가 3위에 오른다.

SSG-두산전 결과와 관계 없이 3위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한다.

하지만, NC가 1승 1패를 하면 SSG에도 SSG가 두산에 2승을 거둬도 SSG가 3위를 차지한다.

NC가 1무 1패나 2패로 고전하면 두산도 3위로 도약할 기회를 얻는다.

두산이 3위에 오를 경우는 단 3가지다. NC가 1무 1패를 하고 두산이 2승을 거거나, NC가 2패를 당하고 두산이 2승 또는 1승 1무로 SSG를 누르는 상황이 오면 극적으로 두산이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다.

NC가 5위로 떨어질 경우는 단 2가지로 매우 희박하다. NC가 2패를 당하고, 두산이 1승 1무 또는 2무를 하면 NC가 두산과 SSG에 밀려 5위까지 내려간다.

SSG와 두산은 4위를 확보하고서, NC의 결과를 지켜보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 4위 싸움은 SSG가 유리하다.

SSG는 남은 두산과의 2경기에서 1승을 거두면 4위를 확보한다. 반면 두산은 2승 또는 1승 1무를 거둬야 SSG를 제칠 수 있다.

/ 최준용 기자

두에 복귀했다.

에릭 콜(미국), 알렉스 노렌(스웨덴) 등 4명과 공동 선두에 있었지만, 웹피언 조에 속한 김주형이 라운드를 가장 덜 치른 상황이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김주형은 더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 13번 홀(파5)에서 곧바로 버디를 뽑아내며 19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김주형은 세 번째 샷에서 과감한 칩인을 시도했고, 이후 벗나간 공을 약 1.9m 거리에서 쳐 버디 퍼트를 떨어트렸다. 그려면서 경쟁 구도는 같은 조에 속한 애덤 해드윈(캐나다), 바로 앞 조인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와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김주형은 해드윈, 펜드리스에게 1타 차로 추격받는 15번 홀(파4)에서 3.6m짜리 버디 퍼트를 떨어트리며 2타 차로 도망갔다. 해드윈도 곧바로 15번 홀 버디를 잡아 김주형을 1타 차로 압박했고 승부는 16번 홀(파5)에서 갈렸다.

버디 퍼트를 놓쳐 아쉬움을 드러냈던 김주형은 해드윈이 퍼트를 놓치고 자신이 퍼트를 집어넣은 뒤 미소를 지었다.

/ 이철민 기자

김주형,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2연패…PGA 통산 3승째

3년 연속 한국 선수 우승…PGA 3승은 최경주·김시우 이어 세 번째



김주형은 이 대회 2연패와 투어 3승째를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151만2천달러(약 20억5천만원)다.

한국 선수의 PGA 투어 대회 2연패는 2021, 2022년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한 이경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아울러 임성재가 2021년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래 3년 연속 한국 선수가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PGA 투어에서 3승 이상 거둔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8승), 김시우(4승)에 이어 김주형이 세 번째다. 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이 대회 우승으로 PGA 투어 사상 두 번째 어린 나이에 2승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시 김주형의 나이는 만 20세 3개월로 타이거 우즈(20세 9개월)보다 빠르게 2승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우즈가 좀 더 빨랐다. 타이거 우즈는 만 21세, 김주형은 21세 3개월에 3승째를 기록했다.

PGA 투어가 2024년부터 단년제로 편성됨에 따라 이번 대회는 2022~2023시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김주형은 사실상 시즌 2승째를 올린 것으로 계산된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주형은 3번 홀(파4) 버디로 단독 선두에 올랐고 4번 홀(파4)에서도 1타를 더 줄이며 좋은 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5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루드비 오베리(스웨덴),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하더니 6번 홀(파4)에서 연속 보기로 선두와 1타 차 공동 3위로 하락했다.

이후 파를 지켜나간 김주형은 전반 마지막 9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 공동 2위로 반등했다.

10번 홀(파4)에서는 약 4m짜리 퍼트가 홀 왼쪽으로 비껴가 버디 찬스를 놓쳤으

나 12번 홀(파4)에서 타수를 줄여 공동 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는 유럽의 5대 리그에서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선수"라며 "물론 나폴리에서의 한 시즌을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SPN은 이어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토트넘)의 나이인 31세에서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1위로 뽑혔고, 그의 비교 대상은 골키퍼 알리송(리버풀)이었다.

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나이인 22세 중에서는 부카요 사카(아스널)가 최고의 선수로 지목됐다. 최고령인 36세 부문에서는 리오넬 메시(마이애미)가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 뽑혔다.

/ 박정민 기자



전 세계 26세 축구 선수 중 최고는 김민재…No.1 센터백 잠재력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전 세계 26세 축구 선수 가운데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로 평가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6일 나이별로 최고의 선수를 한 명씩 선정해 발표했다. 예를 들어 23세 중에서는 엘링 헐란(맨체스터시티)이 최고의 선수고, 24세는 키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가 가장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라는 방식이다.

16세부터 36세까지 나이별 최고 선수를 선정한 가운데 김민재는 26세에서 1위를 차지했다.

ESPN은 이 나이에서 김민재의 경쟁자로 프랭키 더용(FC바르셀로나)과 니콜로 바렐라(인터밀란)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더용과 바렐라 모두 골 지역 근처에서 공격적인 임무를 많이 수행하는 현대적인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선수들"이라며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그런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수원 삼성, K리그 퀸컵 2연패…MVP 이세빈

프로축구 K리그 25개 모든 구단의 아파추어 여자팀이 경쟁한 2023 K리그 퀸컵에서 수원 삼성이 우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충북 청천축구센터에서 끝난 K리그 퀸컵 결승에서 수원이 대전하나시티즌을 3-0으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승팀 수원과 준우승한 대전은 트로피와 아디다스 공인구를 받았고, 대회에 처음 나온 김포는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 정윤석 기자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유니세프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많습니다.



매월 30,000원이면
매월 27,500L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수질 관리를
지원하고 펌프를 보낼 수 있습니다.



www.unicef.or.kr (02)737-1004

“대중문화예술인 차별 않는 병역제도 마련하라” 5개 단체 성명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 마련 가능…황금기 놓쳐선 안 돼”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들이 대거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케이팝 예술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중문화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차별 없는 병역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5개 단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처, 즉 한국의 대중문화”라며 “국위선양의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사단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5개 단체
로고

했다.

단체들은 “그런데도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스타들의 팬들과 업계 반발을 샀다. 현재 BTS는 멤

버들의 군 복무에 따른 팀 활동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5개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의 수익도 대중문화예술인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도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황금기를 놓치면 이 영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흥순석 기자

김태우, ‘행사에 사설구급차 이용’ 논란에 “변명 여지없는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태우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를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공개되며 김태우도 덩달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 오정민 기자

12·12 사태 다른 ‘서울의 봄’ 내달 개봉…황정민·정우성 주연



100만 관객 넘긴 ‘30일’ 2주 연속 1위

강하늘·정소민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이 1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하며 주말 극장가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1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남대중 감독이 연출한 ‘30일’은 지난 13~15일 사흘간 31만4천여 명(매출액 절유율 45.7%)의 관객을 동원, 전전 주말(6~8일)에 이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이 영화는 개봉 12일째인 지난 14일에는 100만 관객을 넘겼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121만여 명이다.

추석을 전후로 나온 영화 가운데 100만 관객을 달성한 것은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로, 5만8천여 명(8.3%)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185만여 명이다.

/ 김균성 기자

‘30일’은 주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3일 개봉해 시기상 흥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개봉 직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창훈 감독이 연출하고 흥사빈·송중기가 주연한 누아르 ‘화란’은 ‘30일’에 이어 2위였다. 8만7천여 명(12.9%)을 더해 누적 관객 수는 16만6천여 명이 됐다.

지난 11일 개봉한 이 작품은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려는 소년 연규(흥사빈 분)와 그가 들어간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송중기)의 이야기를 다뤘다.

3위는 김성식 감독의 판타지 영화 ‘천박사’로, 5만8천여 명(8.3%)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185만여 명이다.

바이러스 딛고 무대 오른 65세 마돈나 “다시 설 줄 몰랐다”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가 박테리아 감염으로 병원 입원 후 다시 무대에 섰다. 15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돈나는 지난 14일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 무대에 올라 월드 투어 ‘셀리브레이션’(Celebration)의 시작을 알렸다.

마돈나는 이날 무대에서 ‘라이크 어 프레이어’(Like a Prayer), ‘홀리데이’(Holiday), ‘보그’(Vogue) 등 히트곡과 함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7번째 생일을 맞은 팔 루데스 레온도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마돈나는 “랄도 안 되는 한 해(crazy

year)를 보냈다. 나도 의료진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힘들었던 지난 몇 달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어나라고 (나를) 자극했고, 아이들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며 아이들 덕분에 무대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당초 마돈나는 지난 7월 15일 캐나다 밴쿠버를 시작으로 북미에서만 41번의 공연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앞두고 6월 말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7월에는 인스타그램에 병원 치료 후 처음 균황을 전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은 건강과 함께 더 강해지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단다”고 밝힌 바 있다.

/ 손현수 기자



10·26 사태를 다룬 영화 ‘남산의부장들’(2020) 등을 선보인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 김채윤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동 한가운데 찾아온 그리너리 공간, 보타닉 하우스

보타닉 하우스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 공간입니다.

800여 평의 탁 트인 공간에서 정원과 햇살, 파리에서 온 최상급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떼르 드 카페와 함께 일상 속 작은 쉼표를 만드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나물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비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카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현대백화점 목동점 본관 7층



지금 둘러보기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AI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LG U+**